

# 『노상추일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산후병의 현실과 질병 인식

염원희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

목차

- 1 머리말
- 2 산후병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질병 인식과 치료
- 3 『노상추일기』에 나타난 출산과 산후병의 양상
- 4 산후병을 통해 드러나는 출산의 현실과 타인에 의한 질병서사
- 5 맺음말

이 글은 산후병에 대한 의학적 인식과 현실을 통해 출산의 고통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 의서와 치험 기록, 일기에 형상화된 산후병을 대상으로 이 질병을 둘러싼 담론과 현실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의서에서는 산후병에 대한 분명한 질병 인식과 함께 출산은 여성 신체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이 드러나며, 특히 정신적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산후병의 의학적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역시만필』을 통해 확인했으나, 남성에 의해 기록된 여성 질병 서사인 『노상추일기』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산후병으로 허무하게 죽어갔던 현실이 드러나며 동시에 그 고통의 문제가 어느 정도 공감받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산후병에 대한 다층적 질병 인식을 통해 산후병의 고통이 오랫동안 공동체에 인정받아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국문핵심어: 산후병, 출산, 산후풍, 산후정신병, 역시만필, 노상추일기

## 1 머리말

애기 난(낳은) 엄마가 굶어서, (웃음) 애기를 갖다가 숙성해갖고 그것 어떻게 해서 먹었디야. 아주 애기 난 사람이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 애기가, 저기 닭으로 보였디야. 실질적인 닭. 그전을 보여서 밖에다 놓고, 잡아 보니깐 자기 자식이드라. (조사자1: 이 안양에 그런 애기 있었어요?)  
응. (웃음)<sup>1</sup>

이 설화는 산모가 출산 직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비극적 사건을 담고 있

---

1 엄순환(1938년생), 「애기를 잡아먹은 어머니」, 『한국구비문학대계』, 조사일 2018년 2월 28일, ([https://gubi.aks.ac.kr/web/VolView2\\_html5.asp?datacode=02\\_16\\_FOT\\_20180228\\_KJO\\_ESH\\_0004&dbkind=2&highlight](https://gubi.aks.ac.kr/web/VolView2_html5.asp?datacode=02_16_FOT_20180228_KJO_ESH_0004&dbkind=2&highlight), 검색일: 2022년 3월 8일).

다. 특히 출산 후 겪는 심리적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산후병의 일종인 산후우울증 증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산모가 영아 살해의 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아이를 동물로 착각하는 ‘환각’과 대상에 대한 충동적 살해로 까지 이어지는 이 같은 증상은 정신병적 관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위의 인용문은 설화로 수집된 것이므로 ‘사실’과는 구분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된다는 것은 전승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있을 법한 일’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초라 할 수 있다.

이 설화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사례는 아닐지라도,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산후에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신체적·정신적 아픔을 겪기 쉽다. “이때 발생하는 질병은 임신 및 분만과 원인적(原因的) 관계가 없는 우발적인 것일지라도 질병의 경과가 산후 허약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산후의 회복을 저해하게 되므로 한의학에서는 산후병(産後病)이라 하여 비산욕기의 질병과 구별하고 있다.”<sup>2</sup> 산후병은 흔히 산후 신체적 증상을 가리키는 표현인 ‘산후풍(産後風)’과 정신적 문제인 ‘산후정신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의서의 산후병 담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산후병의 실제적인 모습을 조선후기 한 남성의 ‘일기’를 통해 확인하려 한다. 본고에서 주목한 텍스트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무관으로 살았던 노상추(盧尙樞, 1746-1829)가 작성한 일기이다. 『노상추일기』를 통해 조선후기 출산과 산후병의 실상, 이에 대한 남성의 소회를 살펴보는 것은 질병에 대한 여성의 자기서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타인에 의한 질병서사의 의의를 짚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일기쓰기는 어제의 행위를 오늘의 인식에 재현하여 음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일상의 반복된 생활과 새로운 발견이 함께 어우러진다. 곧 생활 체험의 일상적인 유사성과 심리적 인식의 상이성이 이루는 화해의 과정이 일기에서 기록된다. 이를 『노상추일기』에 묘사된 산후병의 문제로 구체화한다면, 일기의 주체는 출산이라는 여성의 몸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남성의 시각으로 기록하는 경험을 통해 사건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출산과 산후병,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삶에

2 김수경·길호식, 「산후풍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의학공학회지』 제 4권 2호, 대한한의학공학회, 2000, 290쪽.

서 재의미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일기를 읽는 독자는 조선후기 생생한 산후병의 현실을 목격하고 이 질병의 오래된 고통의 역사를 확인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노상추의 일기 쓰기는 17세부터 84세까지 이어졌는데, 이 중 14년 분량이 실전되어 현재는 총 53년 치의 일기가 현전하고 있다.<sup>3</sup> 『노상추일기』의 주요 내용은 가족과 종친 내외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그중 반복되는 사건은 ‘출산, 질병, 죽음’이었다. 삶 속에서 질병과 죽음은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노상추는 자신이 목도한 장면들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신이 앓았던 가벼운 두통부터 시작해서 돌립병에 걸린 노비와 천연두에 걸려 열꽃이 오르는 아이에 대한 묘사, 무엇보다 아버지 노철의 질병과 그 병세를 세세히 기록하였다. 이 외에 삶의 고통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바로 ‘출산’이었다. 노상추는 아내와 세 번 사별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내를 모두 출산 후유증으로 잃었으며 23년을 함께 한 세 번째 아내마저도 출산을 하다가 죽었다. 산모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경우 아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어미를 잃은 아이들 또한 2~3년 안에 죽고 말았음을 『노상추일기』는 담담히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관혼상제에 대한 문헌 자료는 다수 소개되었으나, 중요한 일생의례의 하나인 출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가 최근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여성의 혼인과 이에 따른 출산의 문제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다룬 일련의 글들을 통해 당시의 혼인 연령과 출산율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sup>4</sup> 조선시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과 낙태의 문제를 파악한 연구와<sup>5</sup> 이수귀의 『역시만필』에 기록된 여성 질병의 사례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어떠했

3 문숙자, 「조선후기 양반의 일상과 가족내외의 남녀관계」, 『고문서연구』 제28호, 고문서학회, 2006, 28쪽.

4 김건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제5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김두얼, 「행장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출산과 인구 변동」, 『경제사학』 제52호, 경제사학회, 2004.

5 백옥경, 「조선시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화사학연구』 제34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7.

는지 논의한 연구는<sup>6</sup> 본고의 논의와 밀접하다. 특히 18세기 제문과 행장, 묘지명에서 여성 관련 내용을 추출한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이 발간되면서 여기에 수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질병과 죽음에 이른 40여건의 기록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sup>7</sup> 동일한 자료집을 대상으로 여성 63명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유교적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sup>8</sup> 여성 망자에게 부치는 제문(祭文)을 대상으로 남성 기록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질병 경험을 기억하고 서술한 방식이 연구되기도 하였다.<sup>9</sup> 이들은 여성사적 맥락에서 여성과 질병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 중 일부 내용이 출산의 고통과 그로 인한 여성의 죽음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지만 ‘산후병’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에서 주목한 또 한 가지는 여성 질병의 기록자가 병자 자신이 아닌 남성이었다는 점이며, 이는 본고에서도 주목하는 바이다. 이 외에도 일기문학인 『묵재일기』에 기록된 출산과 육아 관련 민속이 학계에 소개된 바 있으며,<sup>10</sup> 의료사적 관점에서 『묵재일기』를 연구한 사례도 있으나 출산 관련 기사보다는 가족과 친지, 노비 등 이문건 주변인의 질병과 치료에 쓰인 의약에 관심을 둔 논의였다.<sup>11</sup> 『노상추일기』에 등장하는 여성의 출산과 죽음을 언급한 처음 것은 문숙자로 노철·노상추 부자의 삼혼

- 
- 6 이꽃메, 「『역시만필』의 사례로 재구성한 조선 후기 여성의 삶과 질병」, 『의사학』 제24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5.
- 7 이경하, 「상층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죽음의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이 글에서 검토한 여성에 대한 천여 편의 글 중, 임신으로 인한 죽음 관련 기사는 90여 편 정도인데 유산은 10여 편, 어려서 죽은 자식에 대한 언급은 21편, 거듭되는 출산으로 인한 득병이나 죽음은 6편이라 하였다. 이 글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 출산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병을 얻거나 죽은 여성에 관한 기록을 합치면 총 40여 편에 달한다고 파악하였다.
- 8 문현아, 「조선 후기 양반 여성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사례 연구」, 『여성과 역사』 제30호, 한국여성사학회, 2019.
- 9 서경희, 「조선 후기 여성의 질병 경험에 대한 기억 서술과 의미-여성 대상 제문(祭文)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51호, 한국어문학회, 2021.
- 10 이복규, 「『默齋日記』에 나타난 出產·生育 관련 民俗」, 『은지논총』 제3권 1호, 은지학회, 1997.
- 11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들녘, 2014, 174-506쪽.

(三婚)이 아내의 출산 직후 죽음으로 인한 것이었음에 주목하였다.<sup>12</sup>

본고의 논의는 18~19세기에 걸쳐 기록된 『노상추일기』를 통해 조선후기 출산과 산후병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16세기 이문건의 『묵재일기(默齋日記)』와 비교된다. 『묵재일기』는 일기류 중 의약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었으며, 이문건 스스로가 의학 지식에 밝았고 가족, 친지, 이웃의 질병에 의자(醫子)로서 참여하였다.<sup>13</sup> 이에 비하면 노상추는 스스로 의학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주변인들의 질병과 죽음에 관련된 사실을 성실하게 기록하였을 뿐이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노상추는 가족의 질병에 대해 감정을 토로하기보다는 꽤나 절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노상추일기』에 주목한 이유는 한 남성이 담담히 풀어낸 집안 내외의 출산과 산후병, 죽음의 문제가 충실히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에 대한 극진한 관심이자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산후병의 문제는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려워 실상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했다.

질병을 소재로 한 문학적 글쓰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질병의 현실을 수용하고, 질병의 주체인 병자와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낸다. 그중에서도 매일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일기는 일상다반사였던 산후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그 과정에 따라 비교적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산후병을 겪는 산모가 스스로 그 경험을 토로한 ‘자기서사’는 아닐지라도, 이를 지켜보았던 주변인의 시선을 통해 여성의 출산과 고통에 관한 당대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산후병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질병 인식과 치료

이 장에서는 산후병을 의서(醫書)와 의안(醫案)에서 다룬 산후병을 통해 의학적 관점에 드러난 산후병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후병 중에서도 먼저 산후풍(産後風)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이 겪는 신체적 이상 증상을 총칭하

12 문숙자, 앞의 글, 261-223쪽.

13 신동원, 앞의 책, 178쪽.

는 민속병(folk illness)으로<sup>14</sup>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일상어휘로 쓰이다가 질병 용어로 탈바꿈한 사례이다. 고전 의서에서는 산후풍이란 표현은 확인할 수 없고, ‘산후 관절통(關節痛)·신통(身痛)·편신동통(遍身疼痛)’이 산후 관련 질환으로 인식되었다.<sup>15</sup>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산후풍은 협의로는 신체적 통증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자율신경실조증을 포함한 전신증후군을 포괄하는 개념<sup>16</sup>으로 볼 만큼 확장적 개념이다.

산후병은 산과전문의서와 종합의서에 걸쳐 두루 관련 내용이 서술되었는데,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산후문(産後門)’을 두어 산후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중 『동의보감』에서 산후병에서는 ‘산후 허약해진 증상(産後虛勞)’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아이를 낳은 지 1달이 안 되어 칠정(七情)이 과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생것·찬 것·끈끈한 것·딱딱한 것을 마음대로 먹거나, 풍한에 상하면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후 곧 욱로(辱勞)가 된다.  
(…) 산후에 노상(勞傷)이 과도한 것을 욱로라 한다.<sup>17</sup>

이 글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 중에서도 ‘산후병’에 좀 더 주목한 까닭은 ‘산후’야

14 제소희, 「산후풍의 바람風, 그리고 바람뽕-민속병의 의료화 과정과 질병 서사의 괴리」, 의료 인류학연구회, 『아프면 보이는 것들』, 후마니타스, 2021, 24쪽.

15 배경미·조혜숙·이승환·이인선, 「산후풍과 산후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22권 2호, 대한한방부인과학회, 2009, 182쪽. “이 중 특히 산후편신동통이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산후풍 연구에서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 되었다. 관련 문헌을 통해 도출된 산후편신동통의 원인은 ‘氣血虛’로, 이로 인한 무기력, 한출수족냉(汗出手足冷) 등 기허와 관련된 증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수경·길호식, 「산후풍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제4권 2호, 대한의료기공학회, 2000.

16 위의 글, 182쪽.

17 『東醫寶鑑』雜病篇十, 婦人, 産後虛勞 ‘産後未滿月, 不宜多用七情, 勞倦行動, 或作鍼工, 恣食生冷粘硬之物, 及犯觸風寒, 當時未覺, 厥後即成辱勞……産後勞傷過度, 名曰辱勞, 其證虛羸, 乍起乍臥, 飲食不消, 時有咳嗽, 頭目昏痛, 發渴盜汗, 寒熱如癘.’

말로 여성의 몸이 아이와 분리되는 순간이기에, 산후 여성의 몸에 대한 보호는 곧 여성의 몸이 모체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산모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을 피하고 음식 섭취도 가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노상(勞傷), 즉 몸이 약해진 상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 의서에 명시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후풍의 원인으로 지목된 ‘칠정(七情)’으로, 이는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문제 상황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상관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칠정과 같은 스트레스나 정신 상태가 산후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sup>18</sup> 이러한 점에서 산후풍은 단지 신체적 허약뿐만 아니라, 산후정신병과 긴밀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과(婦産科) 전문 의서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sup>19</sup>의 ‘산후 전광에 대한 방론(産後癡狂方論)’과 ‘산후에 미친 말을 하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 귀신들린 듯한 것에 대한 방론(産後狂言謔語如有神靈方論)’과 15세기에 간행된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sup>20</sup>의 ‘산후에 나쁜 피가 심장에 침범하여 미친 소리

18 손용훈·이인선, 「産後風과 七情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14권 1호, 2011, 287-290쪽.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칠정이 질병의 한 원인임을 인식해 왔으며, 산후에는 칠정을 금할 것을 지적하고 있”(289쪽)으며, “감정의 변화는 다시 신체증을 야기할 수 있는데 칠정으로 인한 동통(疼痛)의 발생은 기울(氣鬱), 기통(氣痛), 구기(九氣), 칠기증(七氣症) 등의 다양한 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양의학에서도 동통과 정서 상태의 유의성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280쪽)

19 송대 진자명(陳自明)이 집필하였다는 『부인대전양방』은 조선 의학에서 산과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조선에서 산과 전문 의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의 독자적인 산과 전문 의서가 간행된 것은 세종 때의 『産書』이고, 이후 『태산요록(胎産要錄)』과 『태산집요(胎産集要)』가 간행되고, 『임신최요방(妊娠最要方)』과 『언해산서(諺解産書)』가 출간, 임진왜란 이후 허준의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가 저술된다.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胎産集要』」, 『장서각』 제3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36쪽.

20 15세기 세종 때 출간된 『향약집성방』 이전에, 1236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의서인 『향약구급방』에서도 출산이라는 비상시, 그중에서도 난산과 산후병 중심으로 증상과 처방을 다루었다. 산후 증상으로는 태반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와 산후중풍, 산후 과다출혈로 인한 번조증(煩躁症)과 정신이 혼미하거나 변비, 장조증(산후우울증), 젖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현주, 『『향약구급방』 부인잡방으로 본 고려의 임신과 출산』, 『역사와 현실』 제112호, 한국역사연구회, 2019, 114-116쪽. 한국 전통의학에서 출산과 산



를 하는 증상(産後血邪攻心狂語)’을 통해 산후정신병의 증상을 살펴볼 수 있다.

산후에 놀라서 패혈(敗血)이 심장에 충격을 주어 정신이 흐려지고 갑갑하여 발광하는 것이 귀신들린 듯 하는 것을 치료할 때는...<sup>21</sup>

산후에 말하는 것이 조리가 없거나 귀신을 본 것처럼 미친 말을 하거나 헛소리를 하는 것은 그 근원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자세하게 변증하고 약을 써야 한다. 산후 경풍(産後驚風)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귀신을 본 듯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것을 치료할 때는...<sup>22</sup>

《성혜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혈사(血邪)가 심(心)에 침범하여 미친 소리를 하는 증상은 산후에 장부가 다 허약할 때에 나쁜 피가 제멋대로 치달려 심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심장은 사기(邪氣)를 받지 않지만 기혈이 서로 다투어 기가 간장을 압박하여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내외가 모두 허약하고 혼란하며 심기가 쇠약해지면 몸이 허해져서 혈사가 심장에 침범하므로 미치거나 혹은 귀신 같은 헛것을 보게 된다.<sup>23</sup>

첫 인용문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패혈(敗血)’은 ‘혈관을 벗어나 조직 사이에 스며든 죽은 피’로 출산 과정의 출혈이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상 증상이 발병한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하였

후병 관련 서술은 의학서 저술 초기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1 참고로 이 글에서 다룬 전통 의서의 원문 및 해석은 한의학고전DB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婦人大全良方』卷之十八 産後門 “産後顛狂方論第六 凡三方 療産後因驚, 敗血衝心, 昏悶發狂, 如有鬼祟”
- 22 『婦人大全良方』卷之十八 産後門 “夫産後言語顛倒, 或狂言謔語如見鬼神者, 其源不一, 須仔細辨證, 用藥. 治療産後驚風, 言語亂道, 如見鬼神, 精神不定者”
- 23 『鄉藥集成方』卷第六十三 ‘産後血邪攻心狂語’ 《聖惠方》論曰 夫血邪攻心, 狂語者, 由産後臟腑俱虛, 敗血奔衝, 邪淫於心. 心不受觸, 氣血相蒸, 氣搏於肝, 神魂不定, 內外虛亂, 心氣怯弱, 因其體虛, 血邪干於心臟, 故令狂亂, 或見鬼神也.

는데 일종의 산후정신병 증상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도하게 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산후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론(産後不語方論第八)’과 같이 산모에게 일종의 언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sup>24</sup> 세 번째 인용문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혈사(血邪)’는 혈(血)에 들어온 사기(邪氣)를 말한다. 산후 쇠약해진 여성의 신체는 사기가 침범하기 쉬운 상태로 이로 인해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일종의 환각을 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귀신 들린 듯’, ‘귀신을 본 듯’, ‘귀신 같은 헛 것’이라 하여 산후정신병의 극단적 증상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산후정신병 증상에 대한 미신적 인식과 의학적 판단이 구분되는 대목으로 의서에서는 산후 증상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는 ‘원시적 질병관’<sup>25</sup>을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의서에서는 첫째, 산모의 산후병에 대한 분명한 질병 인식이 드러난다. 인용된 내용 외에도 의서의 ‘산후문’ 하위 목록을 보면 여성이 산후에 겪게 되는 여러 증상을 산후병으로 수렴하고 있다. 출산 후 증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은 출산 경험이 여성의 몸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패혈’, ‘혈사’ 등 출산 과정에서 흘린 피가 산후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출산 과정의 출혈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까지 막기 어려운 불가항력이다. ‘출산으로 인한 과도한 출혈은 산후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지만 그 자체로 출산의 핵심적 장면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명제이며, 이러한 언술에는 출산의 ‘고통’이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산후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가 정신적 증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산후정

24 산후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과 세 개의 털이 있다. 산후에 허약하면 패혈(敗血)이 정체되고 쌓여 심장의 구멍을 막고 정신이 맑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심기(心氣)는 혀로 통하므로 심기가 막히면 혀 또한 굳어지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婦人大全良方』 “論曰：産後不語者何? 答曰：人心有七孔三毛。産後虛弱，多致停積敗血。閉於心竅，神志不能明了；又心氣通於舌，心氣閉塞則舌亦強矣，故令不語”

25 ‘원시적 질병관’은 실체론적 질병관이라고도 하며, 몸 바깥의 사악한 실체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는 질병을 일으킨 원인과 원인 때문에 생긴 현상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몸 안으로 들어온 사악한 실체는 인간의 몸에 해악을 끼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해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료는 몸에서 원인인 질병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여인석, 『의학사상사』, 살림, 2015, 37쪽.

신병은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독립적인 질병으로 인식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sup>26</sup> 그 심각성을 체감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최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산후정신병이 ‘산후’의 신체적 취약성과 관련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으로 몸을 상한 여성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의서의 산후병 담론은 무엇보다 출산을 겪은 여성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통해 표면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한의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실제로 산후병을 치료했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수귀(李壽龜)의 『역시만필(歷試漫筆)』(1734년)은 『동의보감』에 기반한 의안(醫案)으로 산후병 관련 임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번호	인물(원자료의 사례번호)	질병의 주요 증상	치료 방법 및 경과
1	한판서 며느리이자 한진사의 아내(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에 자녀를 두셋 낳았는데, 출산 때마다 순산하지 못했고 산후에 병이 많았음.</li> <li>• 치료 당시 임신 9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생산(達生散, 출생을 쉽게 달성하게 해준다)을 복용하고 순산, 산후병도 없었음.</li> </ul>

26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정신질환 진단-통계열람(DSM)』 제5판은 산후우울증을 주요 우울증의 아류인 ‘주산기 우울증’(perinatal depression, 임신 기간과 출산 후 4주까지)으로 분류하며,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을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disorder)에 속하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하나로 구분했다. 이처럼 DSM-5에서 산후정신질환은 완전히 독립적인 범주는 아니다.

27 이 표는 이수귀, 신동원·오재근·이기복·전종욱 역, 『역시만필(歷試漫筆)』, 들녘, 2015에 수록된 산후병 자료를 정리하였다. 필사본 『역시만필』은 130쪽지(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간된 번역서는 이 체계를 따랐다. 다만 한 쪽지에 두세 개의 치험 사례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 전체 치험 사례는 150개에 달한다. 이 글에서 인물 옆에 괄호로 제시한 사례번호는 번역서에 제시된 치험 사례에 해당하는 번호를 표기한 것이다. 표에 반영된 자료의 해당 쪽수는 다음과 같다. 415-417쪽, 418-423쪽, 424-425쪽, 440-442쪽, 503-509쪽, 525-528쪽, 553-556쪽, 584-585쪽.

2	이감사의 딸이자 홍생의 아내(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달에 작은 아버지의 부음에 놀라 하혈하고 횡산 증상 후 사산</li> <li>• 숨이 끊어질 듯 하고, 위로는 구토하고 아래로는 설사. 중간에 치료 방법을 바꾸자 먹는 대로 토하고 체증이 심해졌으며, 배 가운데 부위가 힘이 없고 차가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 허탈증에 인삼이 든 보약 중심 약 복용 후 사태(死胎)와 포의(胞衣) 배출</li> <li>• 부자와 인삼을 합한 ‘삼부탕’을 무수히 쓰고, 그 외에도 증세에 따라 여러 약 복용 후 몇 개월 조리하여 쾌차</li> </ul>
3	이한림의 아내(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많이 낳았으며, 본래부터 허약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물탕을 잠시 복용하여 효과를 보았으나 다시 증세가 생김</li> <li>• 십전대보탕을 4-50첩 복용하고 조리하자 편안해짐.</li> </ul>
4	안생의 아내(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 아이를 잃고 슬퍼하였고, 감기가 들어 대엿세 동안 와병</li> <li>• 문득 헛소리하며 남편을 비난하고 투기, 성내면서 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의원은 사수(邪祟)로 보고 치료</li> <li>• 이수귀는 열입혈실(熱入血室, 열이 자궁에 침입)증으로 보고, 열을 풀어주는 시호사물탕과 황련해독탕 처방</li> <li>• 치료 후 환자는 기억하지 못함.</li> </ul>
5	김정의 부인(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래전 출산으로 피를 많이 흘린 후 허로병에 걸림.</li> <li>•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허기증을 참을 수 없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식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기를 회복시키고 비위의 기를 보하는 삼부탕, 보중익기삼건탕을 활용.</li> <li>인삼과 부자 처방</li> </ul>
6	이생의 부인(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만 시 많은 피를 쏟음. 두통이 심하고,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 혈증(血症)을 다스리는 보제 궁귀탕에 인삼 두 돈, 형개수 한 돈 반, 인삼차, 보허탕, 십전대보탕 등 복용 후 회복</li> </ul>

7	김생의 아내(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세에 임신 중 기침, 분만 시 출혈량이 많아 어지럼증을 느끼고 정신을 잃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혈하는 궁귀탕, 어지럼증을 멈추는 형개수, 기운 보충하는 인삼, 피가 멎는 것을 막는 택란 복용 후 회복</li> </ul>
8	어떤 부인(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후 몹시 위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와 혈을 보충하는 팔진탕 대어섯 찹</li> </ul>
9	박상주 며느리(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둥이 출산 후 기침하고 혈떡거림.</li> <li>• 홍역에 걸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역도 모두 출산 후 허증으로 인한 것이라 진단하고, 인삼을 두 배로 한 이공산 보약에 홍역을 위한 승마갈근탕 처방</li> </ul>
10	최이태 딸이자 최대립의 손녀(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0대 무렵 출산 후 허약 증세, 숨 쉬는 것이 거칠고, 음식을 먹자마자 헉기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혈보충하는 팔물탕을 복용하고 조리하자 편안해짐.</li> </ul>

[표 1] 『역시만필』에 수록된 산후병

『역시만필』에 수록된 150건의 질병 사례 중 산후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 1]과 같이 총 10건인데, 8건은 신체적 증상 위주이고 4번과 6번은 산후정신병 증상을 보인다. 산후풍은 출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질병이었고(1, 10), ‘많은 출혈’은 다양한 증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5, 6, 7). 출산 과정에서 기력을 많이 쓴 탓에 ‘허로병’, ‘허기증’ 등 신체 전반이 쇠약해졌고(5, 6, 7, 9, 10), 출산 자체가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8). 이 중에서도 2번은 산모가 가족의 죽음이라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하혈, 횡산으로 인해 뱃속에서 태아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이의 시신과 태반이 몸 밖으로 나와야 하는 위급한 상황으로 산후 몇 개월에 걸쳐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치료 대상이었던 산모들은 대부분 출산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린 탓에 기혈 부족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심하면 정신을 잃거나 헛소리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에 치료는 ‘산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혈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약을 처방하는 방법이었다. 혹여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일어나 열을 보충해야 하는지 열을 흐트러뜨려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때도 ‘출산 직후’라는 상황이 우선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번 ‘안생의 아내’의 경우, 출산 직후 아이까지 잃었는데, 곧 감기에 걸려 5~6일 정도 심하게 앓은 후 정신이상을 보인다.

큰 발열은 없고 살갗의 열도 평소와 같았지만, 문득 헛소리를 하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을 준다고 비난했다. 투기하는 마음을 자주 드러내면서 노기가 등등하여 남편과는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어루만지거나 하면 급히 아이를 빼앗으며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서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아이에게까지 뻗어 아이를 해코지한단 말이오?” 하였다. 시아버지가 나무라면 다만 성을 내면서 울기만 하고, 옷가지를 챙겨 본가로 돌아가려 했다. 걸음이나 신색(神色)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고, 만류하고 위로해주면 노기가 조금 가시곤 했다. 집안 사람들이 놀라 걱정했지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하니 사수(邪祟), 즉 귀신이 들린 것으로 보고 치료하려 했다.<sup>28</sup>

안생의 아내는 헛소리를 하고 성냄과 울음이 뒤섞인 감정을 보이는데 주변인들은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어’ 의원을 부른다. 이때 의원이 ‘사수-귀신 들린 것’이라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원시적 질병관이 작동하였던 현실을 목격할 수 있다. 『동의보감』 잡병편에서 ‘사수’란, ‘환시, 환각, 감정의 심한 동적·퇴행적 행동, 과다 행동과 공격적 언행, 악몽,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sup>29</sup>이라 하여, ‘귀신 들린 것’이라 하는 향간의 인식과 구분된다. 이수귀는 안생의 아내가 보이는 증상의 원인을 자궁에 열이 침입한 열입혈실(熱入血室)로 진단한다. 산모는 산후

---

28 이수귀, 신동원·오재근·이기복·전종욱 역, 『조선 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전기-역시만필』, 들녘, 2015, 441쪽.

29 이부영, 『동양의학 연구-의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집문당, 2021, 151쪽. 이 책에서는 ‘사수’에 해당하는 증상을 정신분열증 해체형(disorganized type)과 비슷하거나, 환시와 환청을 동반하는 해리성 장애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는 한국 민간신앙에서 말하는 잡귀에 사로잡힌 병인 ‘빙의 징후(trancepossession syndrome)의 특징도 있다고 하였다.

아이를 잃은 비애감과 상심으로 인해 발열이 생겼고, 열이 혈실로 들어가 헛소리를 하는 섬망 증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열을 풀어주는 약을 연이어 세 첩 복용하게 함으로써<sup>30</sup> 신체적 원인을 해소하여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신체와 아이를 잃은 충격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모가 극단적인 정신병 증세를 보였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던 모습과 오진, 올바른 치료에 이르기까지 산후병을 둘러싼 다층적인 문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표 1]에서는 가벼운 산후풍에서부터 심각한 산후정신병을 겪는 산모까지 의원 이수귀는 『동의보감』에 따라 처방하여 대부분 치료에 성공하였지만, 『역시만필』에 수록된 산후병에 관한 임상 기록은 주로 성공한 사례 중심일 수밖에 없음도 짐작할 수 있다.<sup>31</sup> 이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어느 양반가의 생활 일기를 통해 산후병으로 인해 산모가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였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노상추일기』에 나타난 출산과 산후병의 양상

조선시대 여성은 출산을 통해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은 남녀의 생물학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재생산 활동으로 정의된다.”<sup>32</sup> 여성에게 출산은 목숨을 걸고서라고 지속적으로 감행해야 할 의무였기에 삶에서 출산은 반복되었고 그에 따른 사망률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3장에서는 이러

30 번역서에서는 이수귀의 치험에 대한 현대 의학적 관점을 덧붙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를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열이 혈실로 들어가 섬망이 생겼다가보다, 심한 발열이 뇌의 특정 영역을 혼란시켜 정신이상인 온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 서술하였다. 이수귀, 앞의 책, 442쪽.

31 이 문장은 산후병의 치료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역시만필』에 수록된 여성 환자 사례에서는 산부인과 질환으로 불임이 되거나 임신 중 유산한 경우도 일부 실고 있어 모든 치료에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꽃매, 앞의 글, 514-515쪽.

32 김은실,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6, 121쪽.

33 조선시대 양반계층 부부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58.1세, 여성은 45.3세였는데, 15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행장류(行狀類)에 드러난 양반 여성 193명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그

한 현실을 18~19세기에 기록된 『노상추일기』를 대상으로 살펴보려 한다. 노상추는 경상도 선산(善山)에서 태어나 삭주부사(朔州府使)를 지낸 무관(武官)으로<sup>34</sup>, 그의 일기 쓰기는 17세부터 84세까지 이어졌으며,<sup>35</sup> 이 중 가족 내외의 출산에 대한 기록은 1763년부터 1784년 관직을 얻기 전까지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이 자신의 산후병을 스스로 기술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가장이 집안 내외의 대소사를 기록했던 공일기(公日記)적 성격<sup>36</sup>의 일기를 통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고, 산후병에 걸렸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기는 매일의 경험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주로 기록물의 차원에서 다루졌지만, 일기에 담긴 세계 역시 글쓴이에 의해 주관화된 세계로 문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일기는 조선 후기 산후병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준다. 의학적 관점으로 기술되었던 의서의 기록을 넘어 삶에서의 질병이라는 구체

원인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난 사례 중 25명이 출산 당시 혹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망 원인 2위인 전염병으로 사망한 13명의 두 배에 가깝다. 김두열, 앞의 글, 9-11쪽.

**34** 안강 노씨(安康 盧氏)에 속한 노상추 집안은 17세기만 하더라도 선산에서 영남 남인(南人)의 가풍을 지닌 명망 있는 양반가였으나 점점 쇠락하였다. 노상추의 조부 노계정(盧啓禎, 1695~1755)이 가난으로 인해 붓을 꺾고 무과에 합격해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까지 올랐는데, 노상추는 조부 노계정을 좇아 23세부터 무과에 뜻을 품었고, 35세에 이르러서야 무과에 급제하면서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치게 된다. 『노상추일기』에서는 가족과 종친 내외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상황이 세세히 기록되었는데,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질병과 죽음이었다. 삶 속에서 질병과 죽음은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노상추는 자신이 목도한 수많은 질병과 죽음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다만 노상추가 1784년 무관으로 임명되어 타향살이를 하면서부터는 공적인 일로 관심사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이전에 기록된 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해은, 「18~19세기 무관의 시선에 비친 조선의 사회상」, 『국역 노상추일기 1』, 국사편찬위원회, 2017, 5-7쪽.

**35** 이 중 14년 분량이 실전되어 총 53년 치의 일기가 현전하고 있다. 문숙자, 앞의 글, 28쪽.

**36** 마치 『조선왕조실록』이 철저히 관찰자의 시점인 것처럼, 가족의 실록인 노상추일기 역시 가장이 관찰자 시점으로 쓴 기록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가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대상화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바깥 활동이 많지 않았던 탓인지 어머니 형수 아내 등은 병에 걸렸거나 근친(親親)을 가는 경우,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일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어쩌다 등장하는 경우라도 철저히 일기의 지은이인 남성의 눈에 의해 관찰된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너머북스, 2009, 20쪽.



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질병으로 인해 여성들이 고통받아온 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일기에서 산후풍은 출산한 여성의 삶에 일상적으로 등장하며, 산후정신병의 문제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묘사된다.

『노상추일기』에 등장하는 첫 출산 장면은 노상추의 어머니인 풍양조씨(豐壤趙氏)의 출산과 죽음이다. 풍양조씨는 노상추의 아버지인 노철의 재취로, 노철의 첫 부인인 완산최씨(完山崔氏)는 노상추의 형 노상식을 출산하고 20일 만에 사망하였다. 출산 직후 사망한 것은 재취인 풍양조씨도 마찬가지였다. 풍양조씨의 마지막 출산과 죽음은 노상추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었던 1764년이다. 풍양조씨는 출산 직전인 6월 11일부터 ‘이질(痢疾)’ 증상을 보인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 증상은 6월 14일까지 계속되었고, 노상추는 이때부터 6월 25일까지 풍양조씨의 증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질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출산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풍양조씨의 건강을 몹시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며, 의원에게 약을 처방받았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탕약을 먹어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6월 17일 저물녘에 진통이 시작되어 6월 18일 축시(丑時)에 출산한다. 그런데 출산 다음 날 일기를 보면 풍양조씨의 상태가 자못 심각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월 19일(기해) 어머니의 증세는 출산 후에 원기가 크게 손상되어서 숨만 겨우 붙어 있었는데, 자궁 출혈이 대단히 심했기 때문이다.<sup>37</sup>

이 진단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정보가 드러나지 않지만 출산으로 인한 과다출혈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에 참여한 산파나 가족 내 여성의 견해였을 것으로 보인다. 노가에서는 풍양조씨를 위한 약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 의원에게 문약(問藥)하였으나, 출산을 위해 집으로 의원을 부르지는 않았다. 노상추는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네 차례 문약한다.

---

37 노상추, 김지홍·원창애·이선희·정정남·정해은 역, 『국역 노상추일기 1』, 국사편찬위원회, 2017, 88쪽.

6월 15일(을미) 장산(長山)에 가서 문약(問藥)한 뒤, 궁귀탕(芎歸湯)을 지어 돌아와서 바로 약을 드셔보게 하였다.

6월 16일(병신) 아버지께서 제평(蹄坪)의 오만운(吳萬運) 어른께 가서 문약(問藥)하고 궁귀안순산(芎歸安順散)을 지어 돌아오셨다.

6월 20일(경자) 서재종숙(庶再從叔) 윤(潤)이 제평(蹄坪)에 가서 문약(問藥)하고 궁귀탕(芎歸湯)을 지어 돌아와서 드셔보게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6월 22일(임인) 제평(蹄坪)에 가서 문약하고 사물탕(四物湯)을 지어 돌아와 드셔보게 했지만 더욱 해롭기만 하였다.<sup>38</sup>

풍양조씨가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하던 나이는 44세로 상당히 노산이었고, 산통이 17일 저물녘에 시작되어 18일 축시에 출산하였으므로 6시간 정도 산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 후 풍양조씨의 고통이 극심했기에 남편인 노철과 아들인 노상추, 서재종숙 윤까지 나서서 ‘궁귀탕, 궁귀안순탕, 사물탕’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를 지어오지만 산모의 고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궁귀탕’은 임신부의 출산을 돕고 ‘사물탕’은 여성들의 혈액순환을 돕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풍양조씨가 출산으로 인해 다량의 출혈을 겪어 위독한 상황임에도 여성의 해산 전 후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 처방했던 약들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풍양조씨는 첫 증세를 보인지 14일, 출산 후 7일 만에 사망했으며, 노상추는 19세에 어머니를 잃게 되었다.

노상추는 어머니가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6월 21일 일기에서 “어머니의 증세가 더 심해지니 염려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걱정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풍양조씨의 사망 전날인 6월 24일에는 “어머니의 병환이 갈수록 위독해지고 있으니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고 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을 겪는 심정을 “애통한 마음이 끝이 없다”고 표현하고, 동일한 문장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반복해서 적는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

38 위의 책, 88-89쪽.

조문은 3개월간 계속되었는데,<sup>39</sup> 8월 14일에 빈소를 철거하고 발인하면서 노상추는 ‘참으로 망극하다’고 쓴다.<sup>40</sup> 『노상추일기』는 전반적으로 사건과 행위 중심의 요약적 기록으로 감정표현이 매우 절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표현은 노상추의 마음을 매우 적극적으로 드러낸 사례에 해당한다.

게다가 어머니로 인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노상추는 자신의 첫 아내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 월성손씨(月城孫氏)는 22세에 아들을 낳고 한 달 이상 앓다가 사망한다. 월성손씨의 해산은 어머니 풍양조씨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한 손님들의 방문이 마무리될 즈음이었다. 10월 9일로 이날 밤 해시(亥時)였다.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아내는 10월 13일부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10월 15일에는 오한과 열이 나면서 전형적인 산후풍 증세를 보인다. 이에 어머니 때와 같이 문약하여 탕약으로 치료하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16일 서재종숙 윤이 제평의 오 어른 집에 가서 문약하니 양혈지황탕(涼血地黃湯)의 화제를 지어주셨다.

10월 17일 아버지께서 월동(月洞)에 가려고 나루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서 권(權) 의원을 만나 약을 물어보시니 어제 썼던 약을 쓰라고 하셨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바로 1첩을 듣게 하였다.

10월 21일 집사람 병이 여전하므로 아버지께서 오 어른께 문약하고 복령보허탕(茯苓補虛湯)을 얻어서 밤에 1첩을 듣게 하였다.

11월 1일 아버지께서 제평에 가서 문약하셨는데, 복령보허탕에다 산약, 황금을 더 넣어서 돌아오셨다.

11월 9일 원기를 시켜 제평에 가서 두드러기약을 문의하자 청비산(淸肥散) 3첩을 지으라는 명을 받아 왔기에 즉시 약을 듣게 하였다.

11월 12일 집사람의 병이 심해지니 염려스럽다. 오 어른께서 복령보허

---

39 일기에는 7월 8일부터 8월 11일에 걸쳐 인척들이 찾아와 조문하였음을 적어두었다. 이후 9월 7일에도 조문이 계속된다. 노상추는 몇 달에 걸쳐 계속되는 조문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통해 죽음을 애도하는 집 안팎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위의 책, 92-97쪽.

40 “1764년 8월 14일(계사) 자시(오후 11시~오전1시)에 빈소를 철거하고 발인하여 산소 자리에 도착하니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참으로 망극하다.” 위의 책, 98쪽.

탕 3첩을 쓰라고 하시므로 집으로 오자마자 들게 하였다.<sup>41</sup>

월성손씨의 산후병에 쓰인 약은 양혈지황탕과 복령보허탕으로, 양혈지황탕은 해산 후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하는 탕약이고, 복령보허탕은 출산 후 허약한 증세를 치료하는 기본 처방이다. 다른 성격의 약은 청비산인데 피부병과 관련되며, 이러한 점은 월성손씨가 해산 후 다양한 증상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월성손씨는 산후정신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18일 집사람이 우는 증세가 생겼으니 걱정스럽다.

10월 19일 집사람의 병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심해지고 있으니 매우 고민스럽다.

10월 20일 집사람이 행랑방(廊下)에 기거했는데 해산 후 기이한 증세가 나날이 심해지므로 큰집의 상방(廂房)으로 다시 들어갔다. 심신이 안정되지 않고 말이 거칠고 잡스러우며 때때로 소리내어 우는 증세가 있으니 참으로 매우 걱정스럽다. 아버지께서 오(吳) 어른 집에 가서서 증세를 상의하고 돌아오셨다.

10월 22일 집사람의 병이 날로 심해지니 걱정스럽다. 이희장 의원이 우연히 왔기에 증세를 상의하니 역시 샷된 기운이 마음에 들어가서 헛소리하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한다.

11월 7일 집사람이 이날 밤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서 가려운 곳을 긁어대는 바람에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없어서 제대로 조섭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11월 11일 집사람의 병이 한창 재발할 조짐이 있고 헛소리하는 증세 또한 지난달 20일 즈음과 비슷하니 매우 걱정스럽다.

11월 16일 집사람이 병으로 지금 옆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다.<sup>42</sup>

---

41 위의 책, 109-114쪽.

42 위의 책, 109-114쪽.

출산 후 허약한 증세로 인해 괴로움을 겪던 월성손씨는 7일 쯤부터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이를 15일 정도 복용하다가 효험이 없자 다시 문약하여 약재를 보충하여 복용하였으나 가려움증 등 추가적인 신체 증상이 생겼다. 일기를 보면 10월 27일을 전후로 월성손씨는 울거나 헛소리하는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므로, 노상추는 잠시 안심한다. 하지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매일 아내의 증상을 지켜보았으나, 월성손씨의 산후정신병은 자못 심각하였다. 10월 18일에 월성손씨는 처음 우는 증세를 보이며, 19일과 20일에도 울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 노상추는 이를 ‘해산 후 기이한 증세’라 표현하고 있다. 월성손씨는 출산 후 회복하지 못한 채 일주일 정도 몸의 통증을 겪은 후 산후정신병이 시작된 것인데, 헛소리를 하거나 기이한 행동을 하였음은 물론 피부질환으로 괴로워하였고, 옆 사람을 못 알아보았다고 하니 간헐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의원이 월성 손씨의 증상은 귀신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음을 10월 22일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11월 4일에는 병환 중에 있던 장인어른이 위독한 딸을 보러오기에 이른다. 아버지를 만나 조금의 차도라도 있기를 기대했건만 월성손씨는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져 남편인 노상추조차도 한탄으로 일기를 채워간다. 특히 사망 전 마지막 4일간의 일기는 아내의 죽음을 예견하고 하늘을 원망한다.

11월 25일 집사람이 병으로 먹지도 못하면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하늘의 뜻인가. 귀신의 조화인가? 아내가 기거하던 곳을 거두고 집으로 들어왔다.

11월 26일 집사람이 아픈 데도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 상방에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시신 같은 사람이 있고 대방에는 어린 여동생만 있으니, 애처로운 나의 운명이 어찌 이렇게도 한결 같이 흑독한지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오늘의 일을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부자만이 서로 알 뿐이다.

11월 27일 집사람의 병이 경각에 달렸으니 걱정스럽다.

11월 28일 이날 유시(오후 5시~7시)에 집사람이 결국 병으로 죽었다.

10년 동안 집안의 화란이 너무도 혹독하니 이 무슨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몹시 애통하고 마음의 괴로울 뿐이니 어찌할까? 어찌할까?<sup>43</sup>

월성손씨는 결국 출산 후 40일 만에 사망하였고, 노상추는 1764년에 가장 가까운 두 여성을 모두 산후병으로 잃은 것이다. 노철, 노상추 부자에게는 참혹한 해일 수밖에 없었다. 노상추는 그 해의 끝자락에는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애달픈 내 한 몸이 참으로 매우 슬프다”<sup>44</sup>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그의 심리적 고통이 컸음은 다음 해인 1765년(을유년) 4월 말까지도 일기를 쓰지 못했다는 점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은 날짜별로 매일의 날짜만 기록할 뿐 어떤 내용도 적혀있지 않다.<sup>45</sup>

하지만 노씨 가계 여성의 출산 후 사망은 1764년으로 끝나지 않았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죽음은 이 집안만의 특수한 사례도 아니었다. 노상추는 재취로 풍산류씨(豊山柳氏)를 맞이하게 되는데, 풍산류씨가 6년간의 결혼생활 후 세 번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해는 1774년이다. 이때 노상추는 산송건(山訟件)을 해결하고자 한양에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기에 풍산유씨의 출산과 사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다만 노상추는 아내의 죽음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 바로 꿈을 통해서이다.

1774년 7월 23일 밤에 꿈을 꾸었다. 고향집에 있는 처가 병이 나서 의원을 불러 병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평상시처럼 시립(侍立)하고 있었다. 내가 병실에 들어가니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방에 앉아 있었고, 처는 병색이 완연

43 위의 책, 115-116쪽.

44 1764년 12월 29일, 위의 책, 121쪽.

45 아내 월성손씨의 죽음에 대한 노상추의 슬픔은 그녀의 기일이었던 1766년 11월 28일 일기에 “이날이 바로 죽은 아내의 대상(大祥)인데 울리에서 한 사람도 와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정이란 말인가”라는 말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아내의 친정집에서 죽은 아내의 기일을 챙기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원망이라기보다는 죽은 아내에 대한 연민에서 나온 발언이다. 위의 책, 239쪽.

한 얼굴로 일어나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병이 이미 나왔다”고 하였다.

깨보니 꿈이어서 마음이 매우 괴이하였다.<sup>46</sup>

꿈의 형식을 빌려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일기류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먼 길을 떠난 노상추는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에도 이에 대한 감정을 적지 않았다. 다만 집안 대소사를 세세히 적었던 일기에 오히려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적지 못했던 점, 이를 대신해 꿈에서 아내를 만난 것과 아내의 건강한 모습을 보았는데도 ‘마음이 매우 괴이하였다’고 한 것은 곧 아내의 죽음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게다가 풍산류씨가 낳은 아이는 어미가 사망한 후 백일을 채우지 못한 10월 29일에 죽었으므로 노상추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sup>47</sup> 하지만 노상추는 바로 그 해 12월 21일에 세 번째 부인인 달성서씨와 혼인하였다. 가문을 위해 자식을 더 얻으려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 번째 혼인 직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두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에 적은 것을 보아 잇따른 아내의 죽음은 노상추에게 큰 충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월성손씨의 대장부와 같은 태도와 풍산류씨의 효부로서의 자질을 칭송하고, 어진 덕을 지니고도 장수하지 못한 두 아내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sup>48</sup>

이후에도 노상추는 내외 여성의 출산을 둘러싼 문제적 상황이 포착되면 간단하게라도 기록하였다.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노상추라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1778년이 그러한 시기였다. 족숙(族叔)의 아내가 팔삭둥이를 낳고 산후증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sup>49</sup> 아내의 유종(乳腫)이 완치되었다는 말에 안도하기도 했다.<sup>50</sup> 하지만 3월 9일

---

46 노상추, 김지홍·원창애·이선희·정정남·정해은 역, 『국역 노상추일기 2』, 국사편찬위원회, 2017, 292-293쪽.

47 1774년 10월 29일, 위의 책, 317쪽.

48 1774년 12월 25일, 위의 책, 330쪽.

49 1778년 2월 2일, 노상추, 김지홍·원창애·이선희·정정남·정해은 역, 『국역 노상추일기 3』, 국사편찬위원회, 2017, 12쪽.

50 1778년 2월 19일, 위의 책, 16쪽.

에 아들을 순산했다던 큰댁 질부가 3월 25일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으며 저절로 가슴이 미어지고 애가 끊어지는 듯하였다”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다. 3월 22일에 가래가 끊고 숨이 가쁜 증세를 보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곧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노상추일기』에서 확인되는 노씨 가문 여성들의 산후병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서술된 기간	인물	주요 증상	처방	결과
1	1764. 6. 11. ~6. 25.	풍양조씨 (노철의 재취)	출산 전 설사 등 이질 증상과 출산 중 심한 자궁출혈	궁기탕, 궁귀안순산, 사물탕	사망
2	1764. 10. 9. ~11. 28.	월성손씨 (노상추의 초취)	출산 후 오한과 열, 두드러기, 소리내어 울기, 헛소리, 섭식장애	양혈지황탕, 복령보허탕, 청비산	사망
3	1774. 7. 23. ~10. 29.	풍산유씨 (노상추의 재취)	(노상추가 한양에 가 있던 때라 병에 대한 기록 없음.)	기록 없음	사망
4	1776. 6. 12.	사비(私婢) 잇분	15개월 만에 출산했으나, 7일 후 사망	기록 없음	사망
5	1776. 12. 28.	노상추의 제수(弟嫂)	출산 후 7일 만에 사망. 병증이 없다가, 전날 저녁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온몸에 땀을 흘림	기록 없음	사망
6	1778. 2. 2.	족숙(族叔)의 아내	팔삭동이 출산 후 산후병	기록 없음	사망
7	1778. 2. 19	달성서씨 (노상추의 삼취)	유증	기록 없음	회복



8	1778. 2. 24. ~3. 28.	정엽의 부인 (노상추의 질부)	가래가 끊고 숨이 가쁜 증세가 있는 지 3일 만에 사망	기록 없음	사망
9	1779. 10. 19. ~12. 8.	달성서씨 (노상추의 삼취)	딸을 순산하였으나, 노상추는 출산 후 두이레(14일)까지 산후풍을 걱정함	기록 없음	회복
10	1789. 5. 5. ~6. 3.	석벽 (노상추의 기생)	유통, 음식 섭취 어려움	기록 없음	회복

[표 2] 『노상추일기』에 등장하는 산후풍의 사례

노상추가 처음 겪었던 어머니와 초취 월성손씨의 산후병에 대한 서술에서는 의원에게 어떠한 약재를 썼는지 드러난다. 다른 의원의 이름도 보이지만 대체로 ‘제평(蹄坪)의 오만운(吳萬運)’이라는 인물이 노씨가문과 친밀하게 왕래했던 의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장의 [표 1]은 중앙에서 활동하였던 의원의 치험 기록이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한 어느 무관 집안의 기록인 [표 2]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표 1]과 달리 [표 2]의 산모들이 대부분 사망한 점을 통해 산후병의 현실이 어떠했을지 어렵듯하게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를 살았던 두 인물이 지켜본 산후병이 이만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상층 여성이라고 하여도 의료의 혜택이 고르지 못했을 것임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두 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18~19세기에 산후병은 의료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분명한 질병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노상추 일가는 산모가 산후병의 증세를 보이면 반드시 의원에게 문약하여 치료를 시도하였다. 다만 아무리 심각한 증상을 보여도 의원이 직접 산모를 진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기에 처방은 산후 여성에게 쓰이는 일반적인 약재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산후정신병은 2장의 이수귀와는 달리 의서의 내용에 반하는 ‘귀신 들린 것’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진 채 산모의 생명이 꺼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목격된다. 이 외에도 노상추는 가족 내외의 출산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출산 후 여성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경

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아내 달성서씨의 산후풍이나 40이 넘어 인연을 맺은 기생 석벽의 출산 후 증세에 각별한 걱정을 비추기도 한다.<sup>51</sup> 이 외에도 의서에 없는 민간요법의 약재를 사용하였던 점도 확인된다<sup>52</sup>는 점에서 일기를 통해 산후병에 대응했던 민간의 태도와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4 산후병을 통해 드러나는 출산의 현실과 타인에 의한 질병 서사

이 글은 산후병에 대한 한의학의 인식을 바탕으로 산후 여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인 산후병에 대한 조선후기의 양상을 통해 이 질병이 오래전부터 의학적·사회적으로 질병으로 여겨져 온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후병은 곧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산후병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노상추일기』에 주목하였다. 『노상추일기』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노상추라는 남성 화자는 물론이고 집안 내외의 남성 가족이 ‘산후병’을 질병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대응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집안을 이끄는 가장의 일기에 세세하게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산후풍이라는 여성의 고통이 외면받지 않았던 현실도 확인할 수 있다. 노상추는 어머니와 아내 등 집안 내외 여성이 출산 전후 보인 증상을 충실히 서술하면서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의원을 찾아

51 42살에 근무지에서 인연을 맺은 기생 석벽의 출산 전후에는 아이보다 석벽의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는 관리로서 근무할 때이므로 일기의 내용이 공식적인 업무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석벽의 출산이 가까워오자 그녀의 몸상태를 종종 서술한다. 석벽의 유통(乳痛) 증세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염려는 물론이고(1789년 5월 21일), 다음 달인 윤5월 18일에 석벽(惜璧)이 해산했다는 소식에도 ‘도리어 마음이 근심스러우니’라며 아이가 아닌 석벽의 안위에 대한 걱정만 한다. 1789년 6월 3일까지도 석벽의 출산 후 건강에 대한 염려가 계속된다. 노상추, 정해은·문숙자·박형우·원창애·이성임 역, 『국역 노상추일기 5』, 국사편찬위원회, 2018, 40-48쪽.

52 1767년 1월 10일 수재(秀才) 윤조득(尹曹得)이 살아있는 박쥐를 구하려고 왔으나 구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 현수씨에게 태동이 있어서 약을 구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구절에서 ‘살아있는 박쥐’가 핵심인데, 임신부가 놀라 하혈하거나 낙태를 막는 약으로 쓰이며, 특히 산에 사는 멧박쥐의 똥이 약재라고 한다. 앞의 책(『노상추일기 1권』), 251쪽. 각주 171.

가 문약하여 산후병을 치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노상추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풍과 산후정신병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면서 그 모두를 출산 직후의 허약해진 상태로 인한 결과로 이해하고 수용하였고, 두 사례를 모두 의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점은 노상추가 여성의 산후병 관련 사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두거나 대상을 미화하지 않는 서술 태도를 지녔다는 점이다. 특히 초취 아내가 앓았던 산후정신병 증상이 맘며느리의 미덕에 어긋나는 내용일지라도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하였던 대목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가부장제 강화로 여성의 행실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었던 조선후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의외의 서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여성은 아파도 고통을 내색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더 나아가 단정하고 의연한 몸가짐을 견지하는 태도가 기대되는 대상이었다.<sup>53</sup> 여성이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이상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여성 질병에 대한 노상추의 가감 없는 서술은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사실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기록된 여성의 출산과 산후병의 문제에 관한 자료를 온전히 여성 고통의 기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기록의 주체가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의서를 저술하고 활용한 주체도 남성 사대부(士大夫)였다. 의서에서 부인병과 관련된 항목 역시 동일한 관점이 적용되었기에 성인 남성 지배층의 관점에서 파악한 여성 신체라는 관점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sup>54</sup> 남성 지식인들의 기억을 통과한 여성의 질병은 당시 부녀에 대한 기대와 윤리를 반영한 형상이고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을 투사한 증상<sup>55</sup>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전통사회 여성은 다른 질병에 걸렸음이 인식되었더라도 임신 가능성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뎠고, 때로는 임신으로 오인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sup>56</sup> 결국 출산에 대한 기대와 의무감이 곧바로 여성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사회적

53 서경희, 앞의 글, 170쪽.

54 이현주, 앞의 글, 114쪽.

55 서경희, 앞의 글, 155쪽.

56 위의 글, 162-163쪽.

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여성은 자신의 신체적 정상성을 우선하여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면에서 남성이 작성한 『노상추일기』를 통해 경험하는 산후병의 현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일기는 철저히 노상추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산모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 노상추는 다른 상층 남성과 마찬가지로 아픈 어머니나 아내의 돌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당대의 규범적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다. 이러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바로 큰댁 질부가 산후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중부로서의 덕행을 강조함으로써 그녀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질병을 겪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한 인간에 대한 연민보다는, 가문을 빛내고 대를 잇는데 일조한 중부에 대한 안타까움에 치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글쓰기가 제한된 시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상추일기』에 형상화된 산후병의 고통은 외면하기 어렵다. 조선후기는 한글 보급을 통한 여성의 글쓰기가 이전보다 보편화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자신의 출산 경험과 산후병 등의 질병을 스스로 기록할 만한 계기도, 사회적 인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집안에서 질병과 치료의 문제는 가장인 남성의 영역이기도 했다. 여성은 가정 안에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돌봄의 주체로 활약하였음에도 질병과 치료를 기록하는 일에서는 소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남성의 관찰자적 시선에 의해 기록된 출산과 산후병이 적어도 왜곡되거나 미화되지 않았다고 할 때, 충분히 그 의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상추일기』에 서술된 여성의 출산과 산후병, 죽음의 과정은 스스로가 기록할 수 없었던 여성의 질병 경험에 대한 타인의 관찰자적 기록 즉 ‘타인에 의한 질병 서사’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병자가 느끼는 증상이 개인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타인의 질병을 지켜보고 기록하였던 경험은 서술 주체의 삶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또 다른 경험으로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노상추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후병을 겪는 아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직설적으로 슬픔을 담은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초취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4개월간 일기를 쓰지 못했다. 일기의 공백을 통해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재취 아내의 죽음 이후에는 꿈을 통해 아내의 죽음을 부정하는 자기방어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집안 내의 여성의 출산과 산후병, 이후 죽음을 여러 해 반복하면서 『노상추일기』의 서술내용은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에 대한 기록보다는 출산 이후의 증상과 치료과정에 좀 더 치중하게 된다. 출산을 대면한 노상추의 태도 변화는 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순차적으로 확인된다. 결국 가문의 번영이라는 의무를 짊어진 가부장에서 여성의 출산이 가진 위험성을 이해하고 가족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적 면모도 드러나게 된다. 물론 삶을 마감하게 된 여성의 고통에 비할 바 아니지만, 관찰자로서 노상추가 본 출산과 산후병의 고통은 그의 삶과 글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매일의 일기쓰기와 같이 삶은 반복되어야만 하기에 반복되는 배우자의 죽음 속에서도 노상추의 일기쓰기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였던 84세까지 계속되었다.

출산은 부부 공동의 사건이다. 지속적인 출산은 가문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었지만, 출산 때마다 생기는 여성의 신체적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후유증은 남편에게도 참기 힘든 고통이었음을 『노상추일기』를 통해 일부나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과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출산을 부정하거나 출산 자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노상추일기』는 물론 동시대의 문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후기 가부장제라는 새로운 전통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과 높은 영아사망율을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 행위는 필수불가결한 방법이였다. 여성의 몸은 가정 안에서 부화를 거둬야만 하는 운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음을 출산과 산후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의학적으로 산후병이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하여도 의학의 개념이 실제 삶에서 체험하거나 목격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산후병에 대한 사회문화적 전통과 인식을 의학적·현실적 차원에서 살펴 이 질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존재하였던 의미와 출산이라는 사건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여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의학 의서를 통해 산후병에 대한 전문 의학적 관점을, 일기를 통해 산후병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서에서는 산후병에 대한 분명한 질병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산후병이 산후 여성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통해 출산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산모의 신체적 취약성이 신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곧 산후 정신병의 원인이 산모의 신체적 취약성과 관련있다는 점에서 ‘산후’라는 조건은 여성에게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의서의 지식이 임상에서 산모들에게 적용되면서 실제로 치료에 그 효과를 보았던 정황을 조선후기 치험 기록인 『역시만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노상추일기』에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 이후 허무하게 죽어갔던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일기를 통해 산후병을 살펴보고자 한 본고의 시도는 해당 질병에 대한 현실을 짚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노상추일기』는 산후병의 문제를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조선후기 일기문학은 출산의 주체가 아닌 남성의 기록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지만, 질병에 대한 여성의 자기서사가 전무한 시대에 타인에 의한 여성 질병서사로서 여성의 질병을 인정하고 함께 고통받았던 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출산과 산후병을 둘러싼 다층적인 시각을 통해 여성의 출산과 산후병에 대한 인식이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질병 인식은 곧 질병 주체의 고통을 사회문화적으로 인정하여 왔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노상추, 김지홍·원창애·이선희·정정남·정해은 역, 『국역 노상추일기 1』, 국사편찬위원회, 2017, 88-89쪽, 92-98쪽, 109-116쪽, 121쪽, 239쪽.

\_\_\_\_\_, 김지홍·원창애·이선희·정정남·정해은 역, 『국역 노상추일기 2』, 국사편찬위원회, 2017, 292-293쪽, 317쪽, 330쪽.

\_\_\_\_\_, 김지홍·원창애·이선희·정정남·정해은 역, 『국역 노상추일기 3』, 국사편찬위원회, 2017, 12쪽, 16쪽.

\_\_\_\_\_, 정해은·김은정·문숙자·박형우·원창애 역, 『국역 노상추일기 5』, 국사편찬위원회, 2018, 44-48쪽.

엄순환, 「애기를 잡아먹은 어머니」, 『한국구비문학대계』, 조사일 2018년 2월 28일, ([https://gubi.aks.ac.kr/web/VolView2\\_html5.asp?datacode=02\\_16\\_FOT\\_20180228\\_KJO\\_ESH\\_0004&dbkind=2&highlight](https://gubi.aks.ac.kr/web/VolView2_html5.asp?datacode=02_16_FOT_20180228_KJO_ESH_0004&dbkind=2&highlight), 검색일: 2022년 3월 8일).

이수귀, 신동원·오재근·이기복·전종욱 역, 『조선 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전기-역시만필』, 들녘, 2015, 415-417쪽, 418-423쪽, 424-425쪽, 440-442쪽, 503-509쪽, 525-528쪽, 553-556쪽, 584-585쪽.

한의학고전DB(<https://www.medicclassics.kr/>)

#### 단행본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너머북스, 2009, 41-54쪽.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들녘, 2014, 174-506쪽.

여인석, 『의학사상사』, 살림, 2015, 37쪽.

이부영, 『동양의학 연구-의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집문당, 2021, 151쪽.

정해은, 「(해제) 18~19세기 무관의 시선에 비친 조선의 사회상」, 『노상추일기 1』, 김지홍·원창애·이선희·정정남·정해은 역, 국사편찬위원회, 2017, 5-7쪽.

제소희, 「산후풍의 바람飐, 그리고 바람뿔-민속병의 의료화 과정과 질병 서사의 괴리」, 의료인류학연구회, 『아프면 보이는 것들』, 후마니타스, 2021, 24쪽.

#### 논문

김건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제5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195-223쪽.

김두얼, 「행장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출산과 인구변동」, 『경제사학』

- 제52호, 경제사학회, 2012, 3-25쪽.
- 김수경·길호식, 「산후풍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의기공학회지』 제4권 2호, 대한한의기공학회, 2000, 277-297쪽.
- 김은실,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한국여성학회, 1996, 119-153쪽.
- 문숙자, 「조선후기 양반의 일상과 가족내외의 남녀관계: 盧尙樞 〈日記 (1763-1829)〉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28호, 고문서학회, 2006, 209-233쪽.
- 문현아,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사례 연구」, 『여성과 역사』 제30호, 한국여성사학회, 2019, 1-31쪽.
-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胎産集要』」, 『장서각』 제3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6-30쪽.
- 백옥경, 「조선시대 출산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화사학연구』 제34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7, 193-220쪽.
- 배경미·조혜숙·이승환·이인선, 「산후풍과 산후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22권 2호, 대한한방부인과학회, 2009, 172-188쪽.
- 서경희, 「조선후기 여성의 질병 경험에 대한 기억 서술과 의미-여성 대상 제문(祭文)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51권, 한국어문학회, 2021, 153-185쪽.
- 손용훈·이인선, 「産後風과 七情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14권 1호, 2011, 279-293쪽.
- 이경하, 「상층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죽음의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149-168쪽.
- 이꽃매, 「『역시만필』의 사례로 재구성한 조선후기 여성의 삶과 질병」, 『의사학』 제24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5, 497-532쪽.
- 이복규, 「『默齋日記』에 나타난 出産·生育 관련 民俗」, 『은지논총』 제3권 1호, 은지학회, 1997, 135-146쪽.
- 이현주, 「『향약구급방』 부인잡방으로 본 고려의 임신과 출산」, 『역사와 현실』 제112호, 한국역사연구회, 2019, 105-134쪽.



조현주, 「산후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치료-인지행동치료적 접근」, 『스트레스』 제 12권 3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04, 39-49쪽.

## Abstract

Postpartum Illness and the Awareness of Diseas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Youm Wonhee

This article attempts to establish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nterest in women's childbirth and pain as well as changes in human beings through the medical awareness of postpartum illness and the reality of disease. For this purpose, the actual appearance and coping methods of this disease were examined by looking at how postpartum illness was embodied in traditional medical books, actual treatment records, and a family diary. Because postpartum illness is an absolute disease with the condition of "postpartum," examining the medical and social awareness of this disease is a starting point for examining how women's childbirth issues were treated by the community. In particular, since postpartum illness is a disease that can cause mental fragility and physical problems, the amount of pain can be measured. Moreover, it can be understood that after childbirth, women were not faced with the problems that everyone faces; rather, they were faced with the problems of life and death.

In medical books, the existence of postpartum illness was acknowledged, and the cause and treatment methods were described in detail. In this way, such medical books clarified that childbirth can cause various other diseases as well as postpartum illness itself. By examining knowledge contained in medical books and medical record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actual treatment was administered was clarified. However, the fact that this case is difficult to see as universal was confirmed by the records of many women who died in vain after giving birth. The diary provides a perspective on the problems of postpartum illness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emotional changes and inner pain experienced by men as an observation vehicle rather than the subject of childbirth.

Key Words: Postpartum disease, childbirth, postpartum gout, postpartum mental illness

본 논문은 2022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